

왜 화장인가

우리나라 글자의 재벌회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화장을 하도록 유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호화분묘를 선호하고 공수리지실에 얽매어 있는데 비해, 이분의 화장유언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지도자였던 덩소평이 화장해서 그 재를 바다에 뿌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평생 원효연구에 몰두하였던 이기영 박사가 자신을 화장해서 원효의 일이 서린 경주에 뿌려달라고 한 것은 강한 인상으로 남는다.

스님들의 화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재가자들의 화장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한편 기이하기도 하다.

우리나라와 이웃한 중국대륙이나 일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화장을 하고 있다. 불교의 고향인 인도 역시 마찬가지다.

인도의 경우는 철저하게 유훈을 맡기 때문에 갠지스강에서 목욕하고 그곳에 화장한 재를 뿌리는 것을 지극한 행복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죽음을 삼과 배반된 악의 세계라고 보지 않고 또다른 삶으로 가는 통과라고 답답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죽음을 재물이 흘러가는 물속에서 인도 사람들은 목욕재계를 동시에 행한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신이 없어진 죽음을 한국인들은 아주 불행으로 생각한다. 비록 혼을 모시고 재사를 지내지만 그 낯은 이 땅에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세상을 떠나지만, 그들은 후손들에 의해서 대대로 추념되어짐으로써 죽음을 무관한 또다른 삶속에 편입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추념의 대상이 그 낯이 갖는 묘지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오랜 풍속이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남아 풍수지리에 따른 길흉화복설이 근대과학의 성과와는 별개로 중시되어 오고 있음이 저간의 사실이다. 조상의 기(氣)를 이어받은 육신을 소중히 하고, 그대를 잇는 가족에 대한 집착이 이 제도속에는 표현되고 있는데, 그런 오랜 관습을 탈피해서 화장을 유언한 것은 쉽지 않은 결단임이 분명하다.



이희재 <광주대 교수·교양학부>

부도를 바라보며 육신에 집착하고 영혼의 정화 힘센 삶의 자취 느껴

그러나 스님이 아닌 속가의 사람들이 화장을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신이나 자신의 선조의 자취가 사라져 버린다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무덤보다도 더 아름다우면서도 상징적인 공양탑(영탑 靈塔)을 안건한 장소에 길이 보존할 수 있다면 이런 열려는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비좁은 국토에 더 이상 매장할 장소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화장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 화장의 풍속은 낯선 것이 아니라 이미 불가에서 대대로 시행해온 것이다. 다만, 전래의 낯이 갖는 체면(體面) 존중사상을 감안하여 후손들이 귀하늘로 자유롭게 떠나지만 낯(魂)은 시신과 더불어 땅에 남아

달라야 라마의 티벳은 조장(鳥葬)을 한다. 고원지대인 그곳에는 목재가 귀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못한다. 대신 세상을 떠나면 그 몸을 독수리의 먹이로 희사한다. 그들에게 육신이란 한낱의 옷과 다를 바 없다. 이제 몸을 떠난 영혼은 또다른 몸으로 옷을 바꿔입는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그들의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화장이나 조장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서해경 한국노인의 전 화 상임이사)이 12일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02)365-2272 김재경 기자

‘아빠, 제발 때리지 마세요’

■ IMF형 아동학대 위험수위...피멍드는 동심

종교계 정신적 공황 치유나서야...제도적 방지책 시급

‘고슴도치도 새 새끼는 함참하다고 한다’. 뾰족하기 이를 데 없는 고슴도치의 털도 부드럽다고 할 만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이란 것. 그런데 IMF관리체제로 인해 살기가 각박해진 탓일까. ‘고슴도치의 사랑’마저 망각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건축업을 하다 지난해 부도가 난 서울 반포동의 박모씨(40). 서울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던 박씨는 부도 뒤 부부싸움이 잦아져 6개월 전 아내가 가출했다. 이때부터 박씨는 6살, 4살난 아들과 딸을 독하면 때리곤 한다. 공사장 막일꾼으로 생계를 꾸리는 박씨는 신경질이 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었다.

경제난 심화로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가 증폭되면서 이같은 아동학대가 위험 수위로 치달고 있다. 실직, 부도 등을 당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화풀이 식으로 폭행을 가하는 IMF형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녀들과 동반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빛에 쫓들린 30대 가장이 8살, 5살난 자녀와 함께 독극물을 마시고 동반자살(아이일방에서)은 살인)한 사건들이 그 예다. 가해자인 부모가 저소득층, 저학력층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아동학대 실태는 전국 16개 시·도에 21개 상담소를 운영중인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협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97년 총 91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04건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80%가 늘어났다.

또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상담센터의 경우도 지난해 159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올해는 8월까지 234건으로 증가했다.

좋은 부모되기운동본부 정승소장은 “아동학대는 정신적·물리적 원인에서 비롯된 가정과외상(外傷)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경제난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신·의식개혁운동 등을 통한 가치관 개혁운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유엔으로부터 폭력과 학대·착취에 대한 아동보호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어린이 학대현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정부가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종교·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신적 공황을 치유·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어려운 때 일수록 자녀와 함께 하는 기정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다. 사진은 산사를 찾는 불자 가정의 정겨운 모습.

불교의 눈

“자애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부모와 자식간은 천륜(天倫)이라 한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도리인 것이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하면 모든 희생을 무릅쓰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다. 하지만 IMF관리체제라는 고봉이 ‘자식 사랑’이란 본능마저 잊게 하고 있다. “자애로운 마음은 온갖 안락의 원인”(우바새계경)이란 역설적인 사실을 망각한 탓이다. “가정은 가족의 마음으로 접촉하는 곳이다.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으로 만나면 여러 가지 꽃이 만발한 정원처럼 아름답지만,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정원을 황폐하게 하는 폭풍과 같다”(팔리 증지부)는 가르침을 되새겨 가정에서부터 희망의 꽃이 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일의 희망인 자녀들에게 아플 대신 꿈을 줘야 한다.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양육하며 언제나 가없이 여겨 뜻대로 먹여 편안함을 얻게 해야 한다.”(아난사자경) “화순(和順)은 집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명심보감) 화목한 ‘가족’에 는 마음의 평화와 용기를 안겨줄 것이다.

‘우리말 상표’ 인기 상종가

“같은 상품 일때 한글상표 선택” 72%

우리말 상표 이름이 요즘 인기가 높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마케팅 전략이 잘 먹혀들자 업체들은 과거 ‘촌스럽다’고 외면하던 우리말 이름을 찾고 있다. 장병이, 해찬들(해가 가득한 들녘), 누비라(세상을 누빈다) ... 친근하고 참신한 이름의 한글상표가 영거 등의 국어상표를 능가하고 있다. 심지어는 ‘산드라’ ‘카디날’ 등 외래어로 불리던 국내산 장미 10여종의 이름이 ‘태양’ ‘여명’ 등 순수한 우리말로 바뀌었다. IMF관리체제 이후 거품이 빠진 시민의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노인권의 대변단체

“밝은 노후모임” 발족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새로운 노인복지운동단체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서해경 한국노인의 전 화 상임이사)이 12일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02)365-2272 김재경 기자

‘아들·딸 골라 임신’ 업체 등장

성비파괴·도덕성·외화지출 논란 예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한동안 IMF시대에 ‘외제 임신법’이 수위되어 남아 초과현상을 부채질할만 물론 외화지출 및 도덕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E사는 지난 7월 셀라스 임신법을 개발한 프랑스의 P연구소와 대항계약을 맺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개발된 이 임신법은 남녀를 결정짓는 X·Y염색체가 각각 ‘+’ ‘-’ 극성을 번갈아 띠기 때문에 이 주기를 이용해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것. 98.7%의 성공률을 자랑한다. 55만원을 내고 자신의 혈액형·생리일 등 신체정보를 제출하면 이를 프랑스에서 처리, 남녀 선별임신 가능기를 표시한 1년치 칼린더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용의 절반은 프랑스에서 가져간다. 김재경 기자

영생교회 7명 동반자살

‘순교 영생’ 종말론 맹신 사이비종교

누구나 언젠가는 닥쳐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이 종교의 한 역할이다. 그러나 사이비종교에서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생(永生)이란 미끼로 끌어들이려 함혹한 종말론을 펼쳐오곤 한다.

지난 78년 가이아나 인민사원의 914명 집단자살, 93년 미국 다투와 86명 사망사건, 94년 스위스 태양의 사원 신도 48명 집단자살 등이 대표적이다. 러시아에서도 구소련체제와 함께 사회불안으로 종말론자들이 15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음친교로 사건으로 충격을 치른 일본에서는 해마다 100여개에 달하는 신종종교가 생겨난다고 한다.

지난 87년 32명의 집단자살로 사회에 충격을 던진 오대양사건을 겪은 우리나라도 사이비종교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5일 강원 양양군에서 영생교회 신도 7명이 함께 불에 타 죽은 승합차 화재사고도 그동안 잠잠한듯 하던 사이비종교의 악몽을 일깨우고 있다.

사이비 종교의 발흥은 급격한 사회적 변동이 일어날 때 이에 적응못한 계층에서 생기는 ‘세기말적 증후군’의 하나라는 것이 종교학자들의 분석이다. 정신적 물질적 위기시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이시대의 마지막 기공

불가기공의 비전 (연/화/도/법)

26년간 입산수도 증생을 위해 하산하신 (도현선사님 직접지도) 14박~15일 단시간 만으로 비전 천수!

- 연화도법은 총 740년이라는 긴 세월간 한 대에 1명씩만 전수해오던 도맥입니다.
- 누구나 바로 천기 및 지기를 느낄 수 있고
- 우리 인체에 음양의 기운을 돌릴 수 있으며
- 14박 15일 수련만으로 기치로의 능력이 자생됨.

이러한 대중들은 꼭 (연화도법)을 전수받길 권합니다.

- 사찰 포교당 및 모든 불제자가 기치로 능력을 배워서 대중을 위해 봉사 하실 분
- 어떠한 일을 해도 전생의 업장으로 인해 일이 안되는 분
- 현대의학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모든 대중 및 불자님
- 기치료를 꼭 배우고 싶은 분
- 기공을 전수받고 이 도법을 대중에게 전수시킬 수 있는 상근기가 강하신 모든 남·여
- 수련단 수련해도 공의 발공이 안되시는 분

연화도법 연구학회

전화 (0431)292-9090 FAX (0431)292-9091

숙식 완전 매점 선방 준비 되어 있음.

氣가 통하는 순간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사라진다

- 全身氣通의 오묘한 功法-전문을 통해 氣가 들어오면 병기, 시기, 특기가 빠져나오며 명문혈에서는 웃자국이 흘러일 정도로 찬기운이 빠져나오고...
- 누구나 좋은 집터, 명당을 얻는다 - 한 유명한 명관이 길을 가다 분묘에 서는다. 이저리에 분묘는 명사가 아니던 할 수 없는 일인데 좌향이 15 톨에서 아무리 이 자리가 명당일지라도 그 자신이 비참하게 멸망하는데...이 묘 쓰고 크게 번영했는데 사초하고 망했구만, 집안창년 17명이 1년내 죽어 버렸고 재산은 모두 탕진했습니다.
- 암, 당뇨요법 - 이제껏 이 자료를 공표하지 못한 이유는 어느 대학교수가 뇌종양환자의 치료를 한다고 나의 문헌을 요구했었다. 정확하게 자료를 넘겨주었던 바 그 교수는 수개월후에 제학회사에 갖고가서 신약을 발표, 의학박사 학위를 획득,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자료는 개업의에서부터 여러 대학의 의사들이 노력도 하지않고 복사학위를 획득하는 제물이 되어 버리므로 공표를 굳게 거절해왔다.
- 숯가루요법, 설사, 장염 ●히라야 육각성의 기적
- 氣功治病秘法 ●소주천 속성법의 비밀
- 氣주입법(미국 일본 등에 알려진 氣주입법)

기치의 육각성 피라미드

최고 피라미드가 인체의 피로회복·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선비의 피라미드 파워를 이용 건강증진, 기수련, 질병치유 촉진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자 정가 : ₩10,000 · 우체국:014092-0035728-17(김건순)

氣功研究會 ☎ 02)455-6944/453-5851

불/자/정/보(사찰)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 ◆면적 : 총 5,800평 - 준 농림지역 (이중 600평 대지, 5,200평 전)
- ◆법당 22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동 각 30평씩, 공양실 13평(충5동), 신축건물, 주차장 원벽, 등기완료
- ◆환경 : 전망최고 사찰정면에 큰 저수지유, 사찰 및 별장, 시설은 A급, 마을에서 3Km 산중턱에 위치. 뒷편은 울창한 숲 - 유실수, 고령 IC에서 6분, 대구에서 30분, 88고속 및 국도

0543)954-6194~5/011)501-2219 FAX 0543)954-6196

사찰운영하실분

- ◆위 치 : 통영시
- ◆부 지 : 1,179평/법 당 : 25평/요 사 : 25평
- ◆주차장 : 무한대 주차가능 버스진입
- ◆가 액 : 1억 9천만원
- ◆특징 : 수려한 산세와 1급수 정경계곡유로 사계절 흐르는 기도 도량으로 주변이 울창한 숲림으로 감싸여있는 금오역시형의 천하명당자리.
- ◆위 치 : 김천역에서 15분거리
- ◆부 지 : 3,000평/법 당 : 33평 ◆요 사 : 50평
- ◆가 액 : 전세 5천만원

※전국 사찰,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적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연결하여 드리고 양도의 사찰 건축, 세무, 법률도 무상으로 상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스님 및 일반인, 무속인, 보살 성인은 절대 사양합니다.

(주)동국불사
상담 : 02)512-4447/011)736-4447

암자·포교당 최고요지

-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전철 3호선, 6호선)
- ◆대지 : 54평, ◆건물 : 25평,
- ◆가액 : 1억 9천만원 (용자 4,500포함)
- ◆법당 2, 방2, 현재운영중

포교당 창건 원하시는 스님, 법사님, 신도님께서는 직접 방문하세요.

011)721-5720 02)384-5720/386-8955

사찰 안내

-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 ◆ 대지 : 260평
- ◆ 건물 : 약 80평
- ◆ 매가 : 1억 3천만원

0333)691-2351

포교원 안내

- ◇ 위치 : 서울노원구상계동
- ◇ 평수 : 50평 3층건물(3층), 방2,주방(주차가능)
- ◇ 가액: 보증금 3,500만원(월25만원)
- ◇ 시설비 : 2,500만원
- ◆ 주변전철역, 교통편리, A.P.T 주택밀집지역, 포교에 최적지임.

02)939-3647012)341-3647